

## 매일경제TV 매일경제

### 갤러리 엠나인(M9), '갤러리 핫플' 방배동에서 개관전 연다

- 장지현 기자
- 입력 : 2021.07.06 10:29:30

오는 16일부터 '갤러리 엠나인(Gallery M9)'의 개관전이 열린다.

갤러리 엠나인은 7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초대 작가 6인의 다양한 회화 작품과 조각전으로 구성된 개관전을 1·2부로 나눠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1부 '시간 속 관조'는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2부 '공간 속 관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개관전은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고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관조'라는 따뜻한 언어에 포커스를 뒀다는 설명이다. 1부에서는 김원근, 도흥록, 박승순, 채성필 작가가, 2부에서는 김우진, 민경숙 작가가 회화와 조각 부문에서 활약한다.

먼저 김원근 조각가의 공항맨, 순정맨, 미녀와 야수 등 대표작들과 그의 신작 언택트맨, 레전드 복서 등 16점이 대거 전시된다. 일본 전시 이후 새롭게 나무 작업과 도자 조형을 작업하며 더욱 왕성한 작업에 몰두하며 'B급 인생의 완벽한 오마주'와 같은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3년 전 작고한 도흥록 조각가의 스테인리스 드로잉도 함께 전시된다. 앞서 그의 아내 나오미군지 작가는 도흥록 조각가의 작품들을 영은 미술관에 대거 기증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이번 개관전의 스테인리스 드로잉 작품 전시도 일종의 '헌정'이라는 설명이다.

8월 진행되는 개관전 2부에서는 방탄소년단 뷁이 구매해 화제가 된 작품 '디어(deer)'를 조형한 신진 작가 김우진, 사과 그림의 장인 민경숙의 전시가 이어진다.

김미경 갤러리엠나인 대표는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작품을 관조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공간을 조성했다"며 "예술가와 대중이 편안히 소통할 수 있는 살롱 문화를 지향하고 신진 작가 발굴, 지원과 실험적인 전시에 문을 활짝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